

■ 연구원 소식

○ 왕기석 이사 공연 안내 (5.6 ~ 5.9)

: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단장으로 재직중인 시립정음사국악단에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별공연 “쪽빛 황혼” 이 5월 6일부터 9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전주 한옥마을 전통문화관 혼례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가족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만져줄 이번 공연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한 삶의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회원께서는 연구원을 통해 예매시 50% 할인 금액으로 관람권 구매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 혼례마당

- 전주역에서 출발
버스타는곳 : 웨딩의전당맞은편 승강장 승차 - 전통상림(한옥마을앞) 하차
버스번호 : 12, 60, 79, 109, 119, 142, 508, 513, 536, 542~546
(소요시간: 25분정도)
택시 : 15분정도 소요
- 전주IC에서 출발
자가용 : 전주IC에서 월드컵 경기장쪽으로 오면(동부우회도로로 가지말것)
- 첫 번째 사거리가 나올-이곳에서 좌회전하여 시내쪽으로
공장 들어올-금암광장 사거리에서 가린리로 직진
-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
버스 : 버스타는곳 5-1(해사승강장맞은편 사2)버스터미널방향 150m 승강장 / 15분간격
79(터미널정문앞 승강장 / 25분 간격)
택시 : 10분정도 소요



2015시립정음사국악단 특별기획공연

05.06 (수)부터 오후 08:00 4일 4회

05.09 (토)까지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관 혼례마당

주최 정음시
주관 시립정음사국악단
후원 전주 MBC



푸지고 걸판진
흥! 눈물! 신명!
그리고 감동!

○ **유영봉 회원 자제 혼인 (05. 09)**

: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교수)의 장녀 유지현 양 혼인이 5월 9일 13시 30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당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에서 9시에 마련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전북권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행 예정 / 15시 서울출발)

○ **나주 나비센터 준비관 개소식 (04. 28)**

: 지난 4월 28일 나주의 나비센터 준비관 개소식에 우리 연구원의 사무국장과 연구간사가 다녀왔습니다. 나비센터는 폐 산업시설인 잠사공장과 그 일원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잠사공장의 공간과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화교육, 시민과 소통, 예술체험 및 문화상품 제작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비센터의 계획에 발맞추어 연구원과 상생 교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전주 일꾼쉼터 강의 (04. 30)**

: 지난 3월 31일, 우리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주일꾼쉼터 1차 인문강좌가 4월 24일 "춘향전의 세계화"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12월까지 9차에 걸쳐 예정된 인문강좌는 전주일꾼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인들의 경제/사회적 자활·자립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인문강좌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간일정

[2015년]

- 05월 04일 : 주간회의
- 05월 05일 : 휴무(어린이날)
- 05월 06일 : 5차 운영위원회
- 05월 07일 : 도서 DB기반 구축
- 05월 08일 : 법인 월례 업무보고

■ 역사속의 오늘

○ 대한민국 육군 최대의 黑歷史

: 지금은 레프팅 장소로 유명한 강원도 인제 내린천은 남에서 북으로 흘러 소양강에 다다르는 곳이다. 한국전쟁 전에는 남북이 오갈 수 없는 처지인 38선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다. 그 일대를 지키던 육군 6여단 8연대 1대대와 2대대 병력 수백여명이 월북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1949년 5월 4일이었다. 육사 2기생이었던 만주군 출신 장교의 폭로로 국군 내 남로당원에 대한 대대적 숙군작업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부대원 가운데 좌익도 있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나선 이들도 부지기수였다. 그날 고향(경남 고성) 친구였던 1대대장 표무원과 함께 월북한 2대대장 강태무는 “포화속으로” 라는 영화에서 그룹빅뱅 탐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묘사되는 인민군 766부대의 지휘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영화와 달리 그는 스물여덟에 인민군 장성이 된 후 2007년까지 천수를 누리며 죽었다. 그는 당일 집단 월북을 앞두고 스물 한 살 된 장교에게 “여기 남아 있으라” 라고 지시한다. 그 말을 듣고 남한에 남게 된 장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백골부대 대대장으로 낙동강 전투와 형산강 도하전투 등에서 지휘관으로 공을 세운다.

월북사건 30년 후 12·12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에게 곤욕을 치른 후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강제예편 당한 육군참모총장이 바로 그 때 그곳에 남아 있던 청년 장교 정승화다.

○ 불우한 시대 지워지지 않는 상흔

: 1964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1980년 광주항쟁 때 고교생으로서 부상자 후송 등을 하며 항쟁의 전말을 지켜보았던 그는 조선대학교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이미 2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전 교직원을 새벽에 출근시켜 몽땅 운동장 구보를 시키고 老교수의 정강이에 쪼인트를 날리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박철웅에 맞서 100일이 넘게 진행된 조선대학교 학내민주화투쟁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한 사람이었다.

조선대학교 교지편집위원장이었던 그는 교지창간호에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을 썼고 그 후 교지편집위원회 전체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1989년 5월 10일 광주시 청옥동 제 4수원지에서 새까맣게 탄 얼굴과 퉁퉁 불어버린 몸, 멍줄이 선명한 팔목 그리고 튀어나온 안구의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 그는 스물다섯의 청년 이철규였다.

당시 그의 처참한 모습은 전국의 담벼락과 전신주 상당수에 벽보와 함께 전시되어 사람들의 고개를 하늘이나 땅으로 향하게 만들기도 했었다.

발견직후 공안당국은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좌경세력 내부의 살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를 조종하던 불순세력이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로 그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는 주장이었다.

그 후 5월 3일 그를 마지막으로 본 택시기사가 증인으로 나타나자 당국은 애초의 '소설'을 거두고 검문 불응 후 도주 중 실족에 의한 익사라고 발표했으며 반대진영에 있던 이들은 팔목의 수갑자국 등으로 미뤄볼 때 연행 후 고문치사 당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첨예하게 맞섰다. 그러나 178일간의 '사인규명 투쟁'에도 불구하고 진상을 알 수없는 상태로 11월 4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말 그대로 의문사인 상태이다. 그의 기일은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5월 3일이 아니라 어머니 황정자 여사의 꿈에 나타난 5월 6일로 추모되고 있다. 멀쩡한 젊은이가 대학교지에 글 한편 쓴 것으로 도망다니다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던 불우한 시대의 기억은 상흔이 크고 깊다.